

원주관광 더 편리하게...원주시, 외국인 관광객시 발대식

원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2026 외국인 관광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시장과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관광객시 운전자 32명, 40여 개국 외국인 인플루언서 55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광객시 인증서 수여, 친절·안전 선언문 낭독, 외국인 관광객시 깃발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틀리 관광택시와 연계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캠퍼어도 함께 열려, 원주의 주요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투어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4월부터 본격 운행되며, 'Gangwon Taxi Tour' 홈페이지(gangwontaxi.com)와 원주역 관광안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객은 필수 관광지인 중앙시장을 포함해 3시간 동안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3시간 기준 3만 3천 원이며, 이후에는 시간당 2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김경태 관광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주 곳곳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크골프 중심지 화천군 어린이들까지 저변 확대

화천군 파크골프 저변이 고령자에서 어린이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화천군은 내달부터 지역 유치원생,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어린이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어린이 파크골프 교실에는 화천 유치원과 신청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한다.

군은 파크골프 교실 운영을 위해 매년 파크골프장 이용, 수업에 필요한 클럽과 볼, 장갑, 볼마크 등 장비 일체도 지원하고 있다.

수업에는 학급별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이 참여하며, 아이 수업 시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참여 어린이들은 파크골프 기초와 이론, 실습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파크골프를 배우 나가게 된다. 군은 올가를 예정된 제4회 화천 교육장배 화천 어린이 파크골프 대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화천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6개를 연중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실업팀 창단에 나서는 등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 서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일반 골퍼와 달리 학생들도 장비에 대한 부담 없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며 "어린이 파크골프 교실이 저변 확대는 물론 신체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공감 행정으로 통합돌봄 현장 점검

경로당 방문해 어르신들께 통합돌봄사업 홍보, 도(道) 전면시행 앞두고 제도 준비 박차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공감 행정의 세 번째 일정으로 3월 18일(수) 오후 3시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하 : 통합돌봄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상자와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사업 도입으로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김 지사는 재택의료센터 간호사와 함께 통합돌봄사업 대상 세대를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대상 어르신은 93세로 현재 혼자 거주하며, 방문요양 서비스(월~금)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의료서비스(월~2회)를 이용하고 있다.

향후 통합돌봄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등 추가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김 지사는 빨래 개기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일 재가요양보호사로 역할을 수행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여러 돌봄서비스가 있어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을텐데 다음 주부터는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을 안내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의 건강을 당부했다.

일일 재가요양보호사 활동을 마친 김 지사는 동네 어르신들이 계신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통합돌봄사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의료진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니,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돌봄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가 든든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대진 해역 문어 산란장 확대 조성

동해시가 감소세를 보이던 문어 자원의 회복과 해양 생태계 개선을 위해 대진 해역에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4천만 원)을 투입해 문어 산란과 은신에 적합한 사단경사형 인공어초 25기를 오는 3월 18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대표 수산자원인 문어의 안정적 증식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해시는 지난 2013년부터 묵호·어달·대진·천곡 등 4개 마을어장 총 32ha에 걸쳐 21억원을 투입, 718기의 인공어초와 구조물을 조성해 왔다.

그 결과, 사업 초기 대비 문어 서식 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어획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어업인들로부터도 "조업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옥기 해양수산과장은 "문어 산란장 조성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바다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기반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춘천 관광캐릭터 '봄내크루' 팝업스토어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관광캐릭터 '봄내크루'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체험형 관광 홍보에 나선다.

팝업스토어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이후 삼악산 케이블카와 남이섬 등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봄내크루'와 떠나는 춘천 여행을 콘셉트로 캐릭터 세계관과 스토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과 관광지 배경 포토존이 조성된다. 또 캐릭터 굿즈 판매와 함께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춘천 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구봉산 카페거리, 트롤리버스 등 주요 관광 요소를 캐릭터 스토리와 연결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캐릭터 기념품은 시의 저작권이 이용 허가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한 운영

한다. 노트, 펜, 스티커 등 팬시류 중심 상품을 시작으로 향후 관광지 협업 굿즈 등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봄내크루' 저작재산권 개방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봄내크루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일부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검토 절차 이후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캐릭터 원본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제작과 판매가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봄내크루 캐릭터를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운영과 저작재산권 개방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며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확대해 춘천 관광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시, 경제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미디어 경쟁력 키운다

소상공인 특화 지원 강화...맞춤형 교육 '거상 프로젝트'도 운영



속초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미디어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경제단체와 손을 맞잡는다.

속초시는 3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속초미디어센터와 관내 경제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속초상공회의소,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강원중소기업실용융합회, 속초여성기업인협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 속초시소상공인연합회, 강원도자

영업자연합회 속초시지회, 속초시수출협회 등 8개 경제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홍보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속초미디어센터는 경제단체 소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회원 무료 가입 지원 ▲스튜디오·교육장 시설 무료 대관 ▲영상 촬영·

편집 장비 무료 대여 ▲미디어 교육 강좌 무료 수강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협약과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인 '천하제일 속초, 거상(巨商)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스마트스토어부터 라이브커머스까지 실전 중심의 심화 교육을 통해 온라인 홍보 강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도 소속 회원들이 미디어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미디어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참여,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디어 활용 기반을 넓히고 홍보 역량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어르신 대상 '천식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일환 참여형 스티커북 교육



양구군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천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면 원당리와 오마리 등 관내 9개 마을 경로당에서 '천식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천식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형 스티커북을 활용한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며 교육 내용을 정리하도록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교육 후에도 가정에서 다시 확인하며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커북 활동은 ▲천식의 원인과 증상 ▲천식 유발요인 찾기 ▲생활 속 예방관리 방법 ▲올바른 약물 사용법 등 천식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천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호흡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천식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스티커를 붙이며 배우니 이해하기 쉬웠다"며 "집에서도 다시 보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과천시, 2025 민원서비스평가 최고 등급 '가등급'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평가

가
최고 등급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과천

40th ANNIVERSARY
I Am 과천
We Are 과천